

지상진료실

임상 치관 확장술 (Clinical Crown Lengthening)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김 성 조

목 차

1. 개요
2. 임상 치관 확장술을 요하는 상황들
3. 임상 치관 확장술의 적용에 앞서 고려할 사항들
4. biologic width of attachment에 관하여
5. 사용 가능한 술식들
6. 술후 치유 및 최종수복 처치의 개시

1. 개 요

건전 치질 상에, 그리고 건강한 치주 조직과 적절한 위치 관계를 갖게 수복물의 변연(margin)을 위치시켜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임상 치관 확장술(이하 치관 확장술)은 수복물의 변연을 위치시키기 위한 충분한 건전 치질의 노출, 수복물의 유지(retention)를 증진시키기 위한 임상 치관 길이의 증대, 그리고 치조골능(alveolar bone crest)과 수복물의 근단 변연사이에 biologic width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술식으로, 주로 수복처치와 연관하여 실시되며 드물지만 심미적 개선을 위해서도 활용된다.

이 술식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우선 그 실시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치관 확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술식들이 동원될 수 있으며, 현존하는 부착 치은의 양등 치주조직의 상황, 그리고 골조직 절제의 필요성등에 따라 적절한 술식을 선택해야 한다.

2. 치관 확장술을 요하는 상황들

다음의 경우에 치관확장술을 일단 고려해 볼 수 있다.

- 1) 치은 연하의 치아 우식증
- 2) 치은 연하 또는 치조골능 하부의 치아 파절
- 3) 임상 치관의 길이가 짧아 보철물의 유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 4) 근관 치료 과정에서의 치은 연하 치근의 천공(perforation)

5) 불량한 수복물의 치은 연하 변연에 대한 접근도의 향상이 요구되는 경우

6) 상악 전치부 순측에서의 과도한 치은 노출(gummy smile)

3. 치관 확장술의 적용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상기의 상황들이 존재하는 치아 모두가 치관 확장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치관 확장술 그 중에서도 특히 치조골의 삭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의 여러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술식을 실시할 것인지 또는 해당 치아 또는 일부 치근의 발거가 더 유리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 1) crown-root ratio
(골조직 삭제 후에 충분한 지지골조직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평가)
- 2) 다근치의 경우 분지부의 위치(root trunk의 길이)
- 3) 시술 과정에서의 인접치의 치조골 소실정도
- 4) 심미적(esthetic)또는 발성(phonetic)의 측면
- 5) 악궁내에서의 치아의 위치
- 6) 교합 관계
- 7) 치아의 전략적 가치(strategic value)
- 8) 치료 술식의 predictability
- 9) 수복 처치의 측면
- 10) 근관 치료의 측면
- 11) post삽입과 연관된 치근 및 근관의 형태
- 12) 수복 후 환자의 치태 조절 능력